

박민지, 삼다수 첫 우승 도전

제9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오는 8월 4일 티샷
브리티시 오픈 참가 해외파들 불참 속 진검승부
올 시즌 1승 선수들 대거 출격... 제주출신 가세

‘대세’ 박민지(24·NH투자증권)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접수하기 위해 출격한다. 이에 맞서 올 시즌 1승씩을 장착한 ‘퀵’들이 2승 사냥에 도전한다. 특히 브리티시오픈 참가로 박민비와 고진영 등 해외파들이 대거 참가하지 못하면서 국내파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8월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9회 제주삼다수마스터(총상금 9억원, 우승상금 1억6200만원)가 그 무대이다.

위의 박민지(23·NH투자증권)와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이에원(19·KB금융그룹) 등 130여명의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샷대결에 나선다. 특히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와 아직 인연이 없는 박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참가로 국내대회에서 한 템포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첫 우승을 향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민지는 우선 2승을 향한 도전자들의 거센 도전을 뿌리쳐야 한다.

신탁), 유해란(21·다음금융그룹), 조아연(22·동부건설), 성유진(22·한화큐셀), 정윤지(22·NH투자증권), 임진희(24·안강건설), 송가은(22·MG새마을금고), 윤이나(19·하이츠진로) 등이 출격한다. 참가신청을 했지만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임희정(22·한국토지신탁)을 제외하면 총출동하는 셈이다. 대회 주최측인 제주개발공사가 후원하는 현세린(21·대방건설), 고지우(19·도화에드가), 임진영(19·까스텔바작) 등 제주출신 선수들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와 함께 지역 스포츠 인재육성 차원에서 제주지역 선발전을 통해 강수은, 고지원, 양아연(이상 프로), 양효진, 이세영, 홍진주(이상 아마추어) 등 6명의 선수가 나선다. 지역 선발전은 지역 골프 꿈나무들의 프로 입문 및 KPGA투어 시드권 확보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메달 독식한 자메이카 대표팀 셸리 앤 프레이저-프레이스(가운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일레인 톰프슨(3위·왼쪽), 세리카 잭슨(2위)과 기뻐하고 있다. 자메이카는 이날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사상 최초로 1-3위를 독식했다. 연합뉴스

제주삼다수 긴 침묵 깨고 ‘금빛 연기’

KBS배 기계체조 단체전 우승
엄도현, 단체 등 5관왕 등극



지난 17일 KBS배 전국 기계체조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정상에 오른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 체조가 긴 침묵을 깨고 ‘금빛연기’를 선보이는데 성공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회장 강창웅)에 따르면 제주삼다수는 지난 1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47회 KBS배 전국 기계체조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김수빈, 김시은, 박예담, 송경은, 양세미, 엄도현)에서 총점 174.550을 얻으면서 경기도형(170.600)과 강남구형(166.950) 등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엄도현은 단체전을 포함 개인종합(49.300점)과 이단평행봉(12.850점), 평균대(11.250점), 마루운동(12.750점) 등에서 1위를 기록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또 김시은은 평균대와 도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김수빈은 마

루에서 2위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여고부에 출전한 현진주(남녕고)도 평균대에서 3위에 올라 오는 10월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0대 돌풍이 거세다. 캐머런 스미스(29·호수)가 18일(한국시간) 제150회 디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400만달러)에서 우승하면서 올해 열린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자는 모두 20대 선수로 기록됐다. 스미스에 앞서 지난달 20일 US 오픈 골프 대회서 우승한 매슈 피츠패트릭(28·잉글랜드)과 5월 PGA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작성한 저스틴 토머스(29·미국), 4월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26·미국)가 모두 20대다. 지난해 7월 디오픈에서 우승한

폴린 모리카와(25·미국)와 6월 US 오픈에서 우승한 온 램(28·스페인)을 더하면 메이저 대회에서 6연속으로 20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20대 선수들의 저력은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서도 확인된다. 메이저 대회와 팀 대회를 제외하고 올해 열린 27개 대회 중 20대 선수들은 총 14개(51.85%) 대회서 우승했다. 정상에 오른 20대 선수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마스터스 포함 올해 4승을 올린 셰플러와 디오픈 포함 3승을 기록한 스미스 외에 샘 번즈(26)와 잰더 쇼플리(29·이상 미국)가 올해 2승을 거뒀고, 램·호야킨

니만(24·칠레)·젠 스트라카(29·오스트리아)·조던 스피스(29)·J.T 포스텐(29·미국) 등이 1승씩을 거뒀다. 20대 선수들의 성적은 그대로 세계 랭킹에도 반영됐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세계 랭킹 10위권 선수 중 20대가 아닌 선수는 2위 로리 매킬로이(33·북아일랜드)와 4위 패트릭 캔틀레이(30·미국) 2명에 불과하다. 1위 셰플러와 3위 램, 5위 쇼플리, 6위 스미스, 7위 토머스, 8위 모리카와, 9위 빅토르 호블란(25·노르웨이), 10위 피츠패트릭까지 8명이 20대다. 연합뉴스

2023 AFC 아시안컵 유치경쟁 4파전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경쟁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4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AFC가 오늘 공문을 통해 2023 AFC 아시안컵 유치의향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유치 의향을 표명한 국가

는 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카타르, 호수 4개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FC는 8월 말까지 유치 계획서(Bid Book)를 제출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9월중 실사를 한 후, 오는 10월 AFC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AFC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60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2회 대회를 연 한국은 63년 만의 아시안컵 개최에 도전한다. 이번 아시안컵은 당초 중국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했다.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증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연료전지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